

# 전문예술인 김정수 포트폴리오

2023년 11월 29일 (수)  
**광남일보**  
문화 18면

**'문화가 있는 날' 드럼 온 체인지  
오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다채로운 실용음악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의 올해 마지막 순서가 29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마련된다.

무대를 선보일 단체는 화려한 버스킹 콘셉트의 음악 연주팀 드럼 온 체인지다. 두 드러머와 광주뮤지션들이 참여해 색다른 공연을 펼친다.

버스킹 드러머와 인디밴드 드러머가 각각의 드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공연으로, 드럼 연주의 화려함과 다양성을 표현한다. 또한 재즈, 라틴, 평크라는 다양한 장르를 섞어 드럼, 피아노, 기타 등 악기의 기량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레퍼토리는 'Higher ground', 'Armando's rhumba', 'The best is Yet to come' 등 8곡이다.

무대에는 드럼 김정수 이다훈, 보컬 최수빈, 피아노 배진혁, 유경빈, 기타 이인준, 베이스 김선별 7명이 출연한다.

입장료는 5000 원. 문의 062-670-7927.

김다경 기자

'드럼 온 체인지' 팀은 광주 전남에서 접하지 못한 화려한 드럼 버스킹 컨셉의 음악을 하고 있는 단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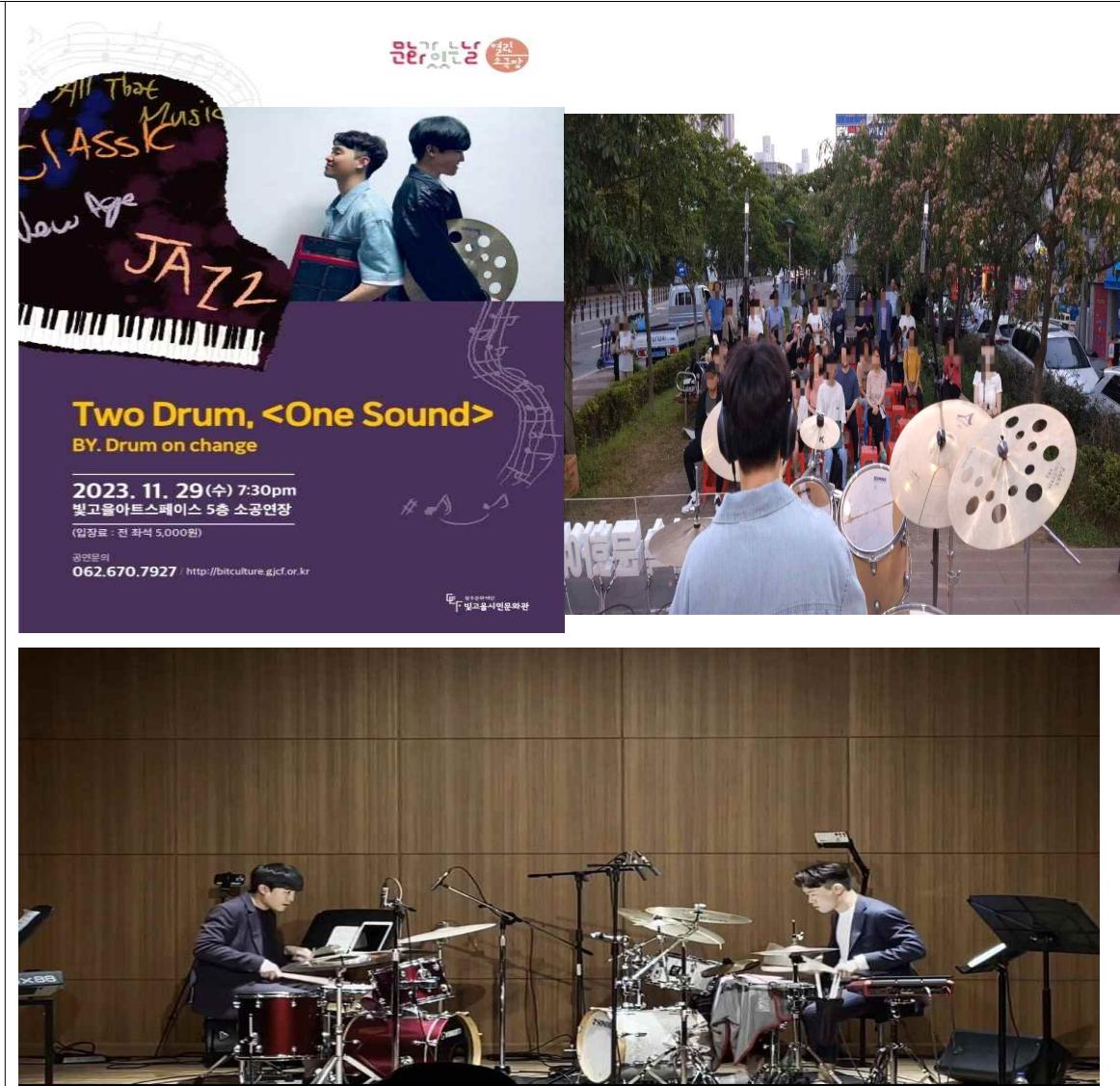
이번 투 드럼 공연을 위해 두 드러머와 광주에서 핫한 뮤지션들이 공연에 참여해 색다른 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버스킹 드러머와 인디밴드 드러머가 각각의 드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공연으로 드럼이라는 악기로 연주의 '화려함', '다양성' 2개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재즈, 라틴, 평크라는 다양한 장르를 섞어서 드럼, 피아노, 기타 각 악기의 기량을 볼 수 있으면서 연주자끼리 배틀하는 이색적인 공연을 보여준다.

드럼 김정수, 이다훈, 보컬 최수빈, 피아노 배진혁, 유경빈, 기타 이인준, 베이스 김선별 총 7명이 출연해 드럼이라는 악기로 2개의 '메세지'를 관객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레퍼토리는 'Higher ground', 'Armando's rhumba', 'The best is Yet to come' 등 8곡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문화권'보장을 위해 지정한 날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 대표자 학력 및 경력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졸업 / 동 대학원 수료  
제31사단 군악대 복무 및 활동  
드럼 단독 버스킹 밴드 「드럼 온 체인지」활동  
퓨전 음악 그룹 라온 밴드 소속

2021년

청춘마이크 시저지사업 선정 (2021.08~12)

- 광주·전남 주요 무대에서 버스킹 공연 진행, 드럼 단독 퍼포먼스의 가능성을 대중에게 알림
-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선정 (2021.10.01)
- 젊은 예술인으로서 창작활동을 지원받아 새로운 공연 레퍼토리와 기획 구상

광주청년센터 뮤지션 선정 & 청춘스테이지 공연 (2021.11.15)

- 청년 음악인으로 공식 선정, 무대 경험 확장

힐링 YES 충장축제 공연 (2021.11.21)

- 충장로 거리에서 드럼 솔로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무대 완성

2022년

청춘마이크 전남사업 선정 (2022.04~11)

- 전남권 문화공간에서 드럼 공연을 이어가며 활동 영역 확대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풍암호수공원 공연 (2022.07)

- 호수공원 야외 무대에서 드럼 단독 공연, 자연과 어우러진 퍼포먼스로 시민들과 교감

광주 충장축제 드럼 버스킹 공연 (2022.10.14)

- 거리 곳곳을 무대로 삼아, 남녀노소 관객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레퍼토리로 공연

뮤지컬 <빨래> 연주 (딴청 팀 참여, 2022.11)

- 드럼 라이브 세션으로 뮤지컬의 감정선과 리듬을 살리며 작품 몰입도 강화

퓨전국악그룹 공연, 수완문화체육센터 (2022.11.12)

- 전통 국악과 드럼 퍼포먼스를 결합해 색다른 무대를 선보임



<-공연영상

2023년

광주 서구 도심 속 문화축제 공연 (2023.06)

-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서 드럼 단독 무대 진행
- 전일빌딩 <Busking in the Night> 초대 연주 (2023.08)
- 야간 버스킹 프로그램에 초청, 드럼 단독 퍼포먼스로 무대 장악
- 광주 충장축제 오프닝 무대 & 거리 버스킹 공식 연주 (2023.10)
- 축제의 시작을 여는 공식 무대와 거리 공연을 동시에 진행, 다양한 세대의 관객과 소통

투 드럼 퍼포먼스 (빛고을시민문화예관 소극장, 2023.11)

- 인디 음악과 버스킹 음악을 융합한 콘셉트, 두 대의 드럼으로 펼치는 이중 드럼 무대

2024년

광주 충장축제 퓨전국악그룹 라온 팀 참여 (2024.10)

- 퓨전 국악과 드럼을 결합해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무대 구성

2025년

전일빌딩245 시민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 초대 연주 (2025.09)

-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기획 공연에 초대 예정, 드럼 퍼포먼스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

## ❖ 드럼 온 체인지 팀의 특징

광주·전남 기반의 특별한 버스킹 공연

- 지역을 대표하는 드럼 단독 퍼포먼스로, 거리와 축제를 무대 삼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독창적인 공연을 선보입니다.

드럼 하나로 완성하는 원맨 밴드 무대

- 드럼과 전자 패드만으로 리듬과 멜로디를 모두 구현하며, 혼자서도 밴드 같은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레퍼토리

- 재즈 전공을 바탕으로 K-POP, 대중가요, 재즈를 드럼 솔로 편곡으로 재해석해 관객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공연을 퍼포먼스로 확장하는 에너지

- 화려한 드럼 솔로, 즉흥 연주, 관객 참여를 결합해 단순한 연주를 넘어 하나의 퍼포먼스와 이야기로 완성합니다.

